

2026년 2월 경매시장 동향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2월 자동차 경매시장 개요

지난 보고서들을 통해서 지난 4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한 경매시장의 계절적 특성과 구조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와 경매 출품 비중 간의 관계, 그리고 경매 출품 비중과 낙찰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매시장이 중고차 전체 시장의 성장 흐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품 물량의 확대가 반드시 거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2026년 2월 한 달의 경매 출품 및 낙찰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다만 월별 자료의 특성상 단일 월의 데이터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확인된 상관관계나 구조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상관관계의 재확인보다는, 지난 달에 이어 경매시장의 내부 구조와 역할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지난달 분석결과 경매 낙찰대수 가운데 상당 비중이 수출 목적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국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와 경매 출품 간의 연계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최근 경매시장 물량 변화의 성격을 구분해 살펴보았는데, 지난 달의 패턴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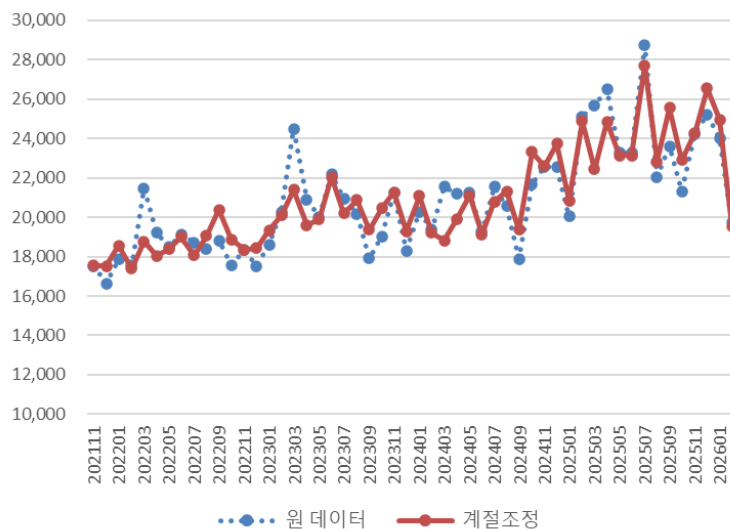
즉, 최근의 낙찰대수 변동이 국내 유통 수요의 회복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결과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이 단순한 낙찰대수 증감에 대한 해석을 넘어, 경매시장의 '체력'과 '역할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은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2월 경매 출품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상품용 이전거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전월 대비 9.5% 감소하면서, 경매 출품대수는 18.8% 감소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중고차 거래 위축에 경매시장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 변화의 이면에서 어떤 구조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1. 경매 낙찰 대수 추세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별 경매 낙찰대수를 원자료와 계절조정 기준으로 함께 제시한 것이다. 2026년 2월 경매시장 낙찰대수는 원자료 기준 19,729대로 전월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기준에서도 낙찰대수는 19,547대로 전월 대비 21.7% 감소하여,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그림 1> 경매낙찰 월별 추세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중장기 흐름에서 보면, 경매시장의 구조적 체력은 지난 수년간 뚜렷하게 강화되어 왔다. 계절 조정 기준 낙찰대수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5년에 들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2026년 2월의 급격한 감소는 다소 이례적인 변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 전쟁이 2월 28일에 발발한 점을 감안하면, 2월의 감소는 전쟁 요인보다는 그 이전부터 누적된 수급 요인 또는 시장 내부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들어 계절조정 기준 월별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경매시장의 역할 변화를 시사한다. 경매시장은 단순한 거래 채널을 넘어, 국내 중고차 유통과 수출 수요 변동을 흡수하는 '조정 장치(buffer)'로서의 기능을 점차 강화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낙찰대수 증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경매시장이 어떠한 수요를 흡수하며 시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이다. 이는 향후 수출 여건 및 국내 유통 환경 변화가 경매시장 변동성으로 어떻게 전이될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이란 전쟁이 중고차 수출과 이에 연동된 경매 낙찰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경매 출품 대수로 본 시장 유입 압력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매 낙찰률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품 물량의 증가가 곧바로 낙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하며, 그 배경에 양질 차량의 출품 부족이 있는지, 또는 경매 참여 업체들의 판매·소화 능력(판매력)에 제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해, 경매 출품 대수 자체와 그 원인이 되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매 출품대수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출품 압력 지표'와, 출품된 물량이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전환 효율 지표'를 정의해 분석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는 해당 지표를 최초로 제시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수치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향후에는 노이즈를 제거한 공식 지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1. 출품 압력 지표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차량 수는 기본적으로 매매상품용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거래 규모에 의존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를 경매 출품에 대한 유입 압력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매 출품대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을 통해 시장 유입 압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상단 패널은 경매 출품대수(Y축)와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X축) 간의 관계를 스캐터플롯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71.5%(결정계수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100대 증가할 때마다 경매 출품대수는 약 37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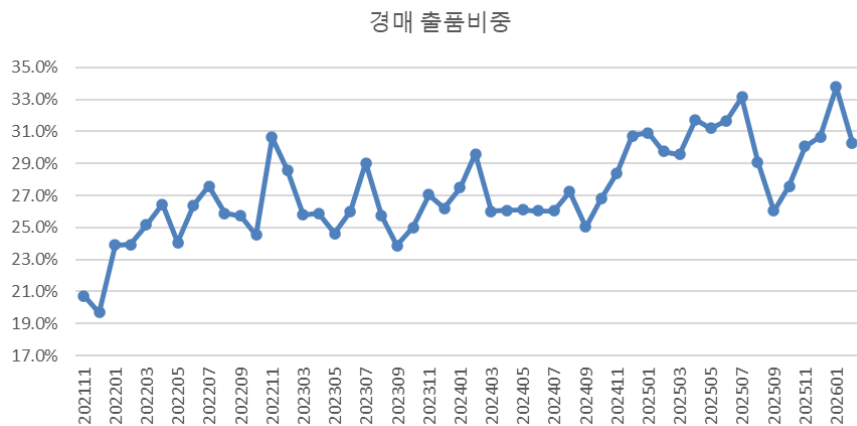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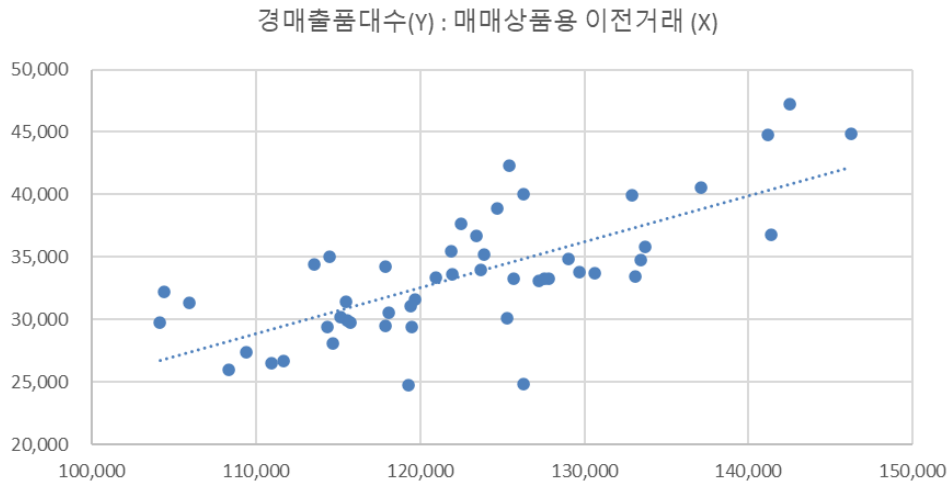
이는 최근 경매시장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흐름에 밀접하게 연동되며, 구조적으로 높은 출품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전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을 이상치로 판단해 제외하였으며, 회귀방정식의 F 값과 p -value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성격을 감안해 수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소화하였다.

$$\text{경매출품대수} = -11,436 + 0.3665 \times (\text{매매상품용 이전거래대수}), \quad R^2 = 0.51$$

<그림 2>의 하단 패널은 월별 경매 출품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말 기준 경매 출품 비중은 20% 내외에 머물렀으나,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25%를 상회하는 수준이 일반화되었고,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30% 내외의 높은 출품 비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경매 출품대수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출품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도매 유통 물량 가운데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경매시장이 중고차 유통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매매상품용 이전거래와 경매 출품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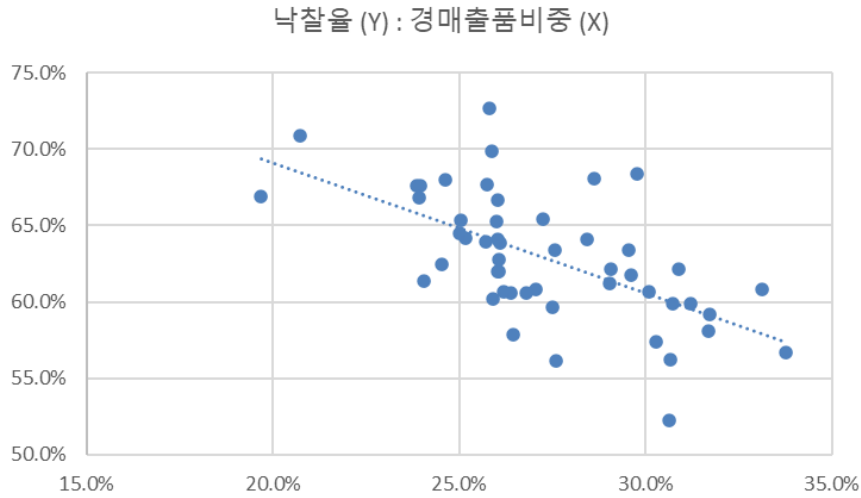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2-2. 전환 효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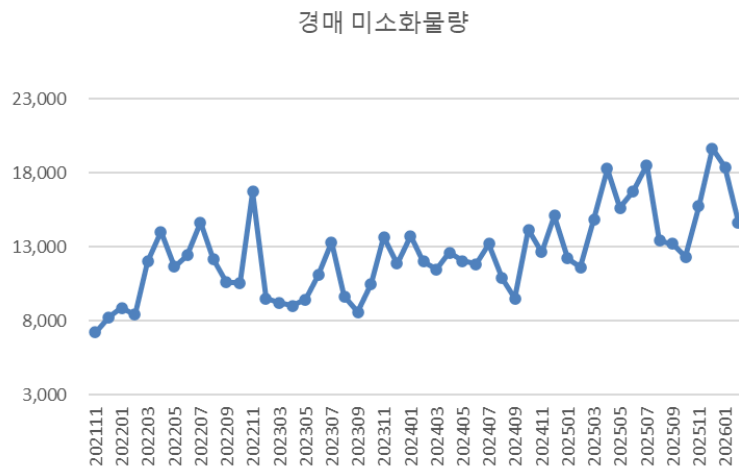
경매시장으로 출품되는 차량들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낙찰로 이어지고 있을까? 본 보고서는 경매 출품비중과 낙찰율 간의 관계를 경매시장의 전환 효율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출품된 물량이 실제 거래로 소화되는 정도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본 절에서는 해당 지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수치의 엄밀한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3> 경매출품비중 (X축)과 경매낙찰율(Y축) 스캐터플롯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그림 4> 월별 경매 미소화 물량 추세



출처: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그림 3>은 경매출품비중(X축)과 경매낙찰율(Y축) 간의 관계를 나타낸 스캐터플롯이다. 전반적으로 경매출품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율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앞

서 <그림 2>에서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증가할수록 경매 출품대수가 확대되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품 확대가 낙찰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낙찰 효율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행 경매 구조 하에서 출품된 차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경매 참여자들의 판매·소화 능력, 즉 오퍼레이션 측면의 제약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는 경매 출품대수 가운데 낙찰로 이어지지 못한 미소화 물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경매 미소화 물량은 2021년 약 8천 대 수준에서 2026년 2월에는 약 1만 4천 대 수준까지 증가하며,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확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미소화 물량의 증가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출품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경매시장의 전환 효율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 수출 말소와 낙찰대수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물량 가운데 상당 비중은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된다. <그림 5>는 수출 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캐터플롯이다.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낙찰 이후 수출 말소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거래구조에서는 수출선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 낙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 분석에서는 수출 말소 예정 대수를 독립변수(X), 경매 낙찰대수를 종속변수(Y)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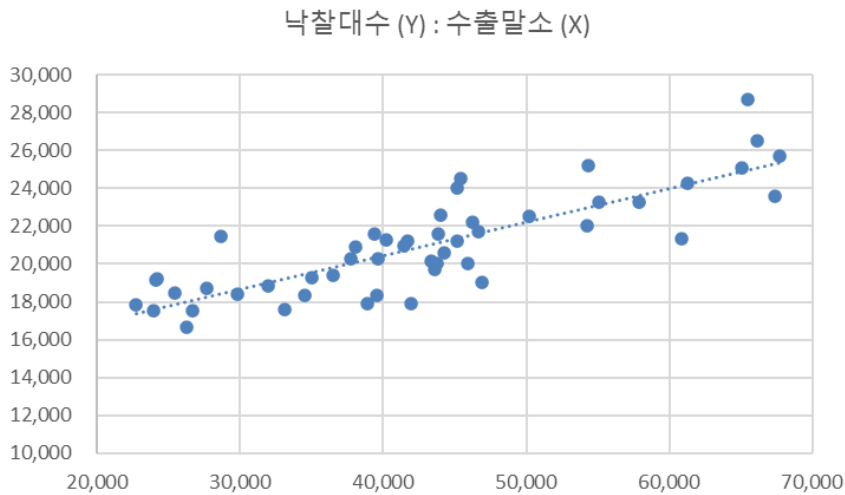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변수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회귀분석 결과 수출 말소 대수가 증가할수록 경매 낙찰대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R^2)는 0.68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 물량의 상당 부분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매 낙찰의 양적 변동은 국내 중고차 유통 여건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구조로 해석 가능하다.

$$\text{경매낙찰대수} = 13,380 + 0.1771 \times \text{수출말소대수}, \quad R^2 = 0.68$$

종합하면, 현재 경매시장은 중고차 시장 전반과 강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은 수출 말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매업체들이 수출 중심의 비즈니스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국내 유통이나 소매 판매 등 다른 수요 채널과의 연결은 아직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경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낙찰 수요 기반을 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5> 수출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스캐터플롯



출처: 전자자동차경매장협회/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3. 요약 및 시사점

경매시장은 중고차 유통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거래 채널로 기능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출품 확대 대비 낙찰 효율이 저하되는 구조적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매 출품비중과 낙찰율 간에는 뚜렷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증가에 따라 경매 출품 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물량이 낙찰로 원활히 전환되

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경매 참여자의 판매 및 소화 능력 등 오퍼레이션 측면의 제약이 전환 효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미소화 물량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은 이러한 전환 효율 저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낙찰되지 못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넘어 출품 압력 증가에 비해 시장의 흡수 능력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시사한다.

셋째, 경매 낙찰대수는 수출 말소 대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최근 경매시장의 낙찰 수요가 상당 부분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매시장이 국내 유통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현재 경매시장은 거래 규모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환 효율 저하와 수요 구조의 편중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향후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출품 물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낙찰 전환 효율 개선,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국내 유통 및 소매 등 수요 기반의 다변화, 그리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 및 참여자 구조의 고도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매시장은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수요 구조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핵심 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조성봉

부소장
(운영총괄)

김원태

수석
객원연구원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